

시즈쿠이시의 온천

시즈쿠이시 지역에는 다양한 수질의 온천이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온천에 몸을 담그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만,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며 하루를 즐긴 후의 온천은 더욱 특별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온천은 호텔과 료칸 안에 있는 시설도 있고, 독립된 시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일 이용객과 투숙객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매너가 있습니다. 탕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신을 씻고 행굽니다. 옷이나 수영복을 입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을 씻기 위한 작은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은 탕 옆에 두고 탕 안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온천에서는 남녀 구분된 목욕탕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린아이는 남녀 중 어느 한쪽의 보호자와 함께 목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온천에서는 문신이 있는 손님의 입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문신이라면 반창고로 가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와 목욕탕을 단독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슈쿠 온천

이 작은 온천 마을은 450 년 이상 전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온천 거리 중심을 흐르는 오슈쿠 강을 따라 근대적인 호텔부터 가족이 경영하는 전통 료칸까지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6 세기 후반에 한 남성이 섬쥐과람새가 다친 다리를 온천에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온천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후 현지 사람들이 온천에서 입욕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지역 호족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전설과 연관 지어 온천을 좋아하는 통통한 섬쥐과람새 ‘게쿄키치’라는 마스코트 캐릭터가 있습니다. 오슈쿠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오타키 폭포’가 있으며, 걸어서 20 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골프장도 있어 자동차로 5 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구릉지에 펼쳐진 18 홀과 골프장 안에 있는 온천에 몸을 담글 수 있는 점이 매력입니다.

아미하리 온천

이와테산의 기슭에 있는 ‘규카무라 이와테 아미하리 온천’은 도와다 호수 하치만타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리조트 시설입니다. 근처에 있는 슬로프를 방문하는 스키어들에게 매우 편리한 시설입니다. 시설 내에는 해발 760m 에서 웅장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 등 5 개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미나미 아미하리 아리네 온천

숲속에 있는 독채 숙소 ‘유코탄노모리’는 당일 이용객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주변 숲과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삼림욕과 온천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시즈쿠이시 다카쿠라 온천

시즈쿠이시 프린스 호텔 내에 있으며, 투숙객뿐만 아니라 당일 이용객도 입욕이 가능합니다. 노천탕에서는 사계절의 절경을 즐길 수 있고, 연못에는 형형색색의 잉어가 헤엄치고 있어 일본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호텔에는 골프장도 병설되어 있습니다. 이와테산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가 풍부한 36 홀 코스가 매력적입니다.

하시바 온천

미치노에키 휴게소 ‘시즈쿠이시 아넷코’에 병설된 당일 입욕 전용 시설 ‘신하시바노유’에서는 일본식과 서양식 스타일의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캠핑장도 있습니다.

고쇼코 온천

‘호텔 하나노유’에 병설되어 있으며, 당일 이용객의 입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실내탕과 노천탕이 있으며, 고쇼 호수와 이와테산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젠부 온천

갯콘다 강 근처에 있는 조용한 온천으로 수질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당일 이용객의 입욕이 가능한 숙박 시설도 있습니다.

구니미 온천

이 온천 마을에 있는 2 곳의 료칸, 이시즈카 료칸과 모리산소는 당일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버스도 오지 않고 휴대전화도 연결되지 않는 계곡에 있어 마을에서 떨어진 곳을 찾는 분들께 이상적입니다. 보기 드문 에메랄드그린 빛의 온천수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 겨울철에는 폐쇄됩니다.

다키노우에 온천

낙차 30m의 ‘도리고에 폭포’가 압권입니다. 주위 곳곳에서 온천과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폭포 상류에는 너도밤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비탕(秘湯,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온천) 중의 비탕이라는 다키노우에 온천이 있습니다. 료칸 ‘류칸소’는 당일 이용객도 입욕할 수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 겨울철에는 폐쇄됩니다.